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침입한 왜적을 격멸소탕하고 큰 승리를 이룩한것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이다. 북관대첩비는 높이 187cm, 너비 66cm, 두께 13cm이며 여기에 1 400여자의 글자가 새겨져있다.

정문부가 함경도 북평사(병마절도사의 보좌관격)로 있던 임진년(1592년)에 일본침략자들은 20여만의 병력과 700여척의 함선을 끌고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다. 그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의 일부는 함경도지방에까지 깊숙이 기어들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도란에 빠지고 흉악무도한 오랑캐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거제의 선혈이 강물이 되어 흐르는 비참함에 참을수 없었던 정문부는 의병을 일으

## 북 관 대 첩 비

키고 처음으로 진행한 장명 전투에서 왜군장수 다섯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적군의 머리를 베는 전과를 올리였다. 이 승리를 계기로 7 000여명으로 급속히 장성한 정문부의병대는 그 기세로 길주성전투, 립명전투, 쌍포전투, 단천전투에서 련전连胜하고 패주하는 적들을 백담령에서 격멸하는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을 함경도지방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708년 함경도 북평사로 있던 최창대의 발기로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의병대가 왜군을 통쾌하게 섬멸한 길주목 립명에 북관대첩비가 세워졌다. 비에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한 의병들

이 적을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그 위력앞에 적들은 넋을 잃고 북쪽땅은 평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농사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립명의 언덕높이 비를 우뚝 세워 정문부의병대의 활동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고 써여져있다.

북관대첩비는 정의의 사랑하고 불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남다른 용감성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으로 되여왔다.

그 민족의 재보가 어느날 갑작같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06년 로일전쟁을 계기로 북관땅에 기어든 일제는 야밤삼경에 달려들어 북관대첩비를 강탈해갔다. 그후 일제는 저들이 강탈해간 북

관대첩비를 군국주의 망령이 도사리고있는 야스쿠니전자의 어둡컴컴한 숲속에 숨겨놓고 11이 넘는 커다란 돌로 짓눌러놓고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북관대첩비가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으로 립명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에는 한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2006년 3월 23일 함경북도 김책시 립명리에서는 북관대첩비를 원상대로 다시 세우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실로 북관대첩비를 다시 찾은것은 6.15시대에 우리 민족이 거둔 또 하나의 《대첩》이며 임진년의 대첩과 오늘 의 《대첩》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서 겨레가 하나로 뭉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세상에 보여준 력사적장기이다.

본사기자

글자는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 필수적인 수단이다.

원래 글자는 사람들이 사상, 생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인 기호로서 글말의 물질적인 수단으로 창조되었다.

글자가 창조되고 글말이 생겨남으로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특히 글자는 과학과 문화를 창조하고 보급하며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되어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조선인민이 창조한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은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우수한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첫째, 가장 발전된 글자형태인 자모식으로 된 음운글자로 만들어져있다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근 7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 글자들을 류형별로 갈라보면 크게 한자나 크레타글자, 슈메르글자와 같은 의미글자와 일본글자나 기브로스글자, 마이글자와 같은 음절글자, 조선글자와 라틴글자,

## 세계의 자랑 《훈민정음》

그리스글자와 같은 음운글자로 갈라볼수 있다. 음운글자는 언어의 음운체계를 반영한 글자로서 불과 몇십개에 달하는 글자를 가지고 수십만개에 달하는 단어를 나타낼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글자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글자류형이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둘째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독특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다는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글자들가운데 그 글자를 만든 사람들과 만든 원리가 정확히 밝혀져있는 글자는 오직 《훈민정음》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은 1444년 1월(음력으로 1443년 12월)에 당시 정인지와 성삼문, 박맹년, 신숙주를 비롯한 《언문정》(조선봉건왕조시기 글자를 연구한 기관)의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에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과 작용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으며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셋째로, 글자기술화에 가장 편리한 글자이라는것이다.

우선 글자기술화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우수한 글자는 글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 으뜸이라고 할수 있다.

《훈민정음》은 글자의 개수가 모두 28자(그중 자음 17자, 모음 11자)밖에 안된다.

글자의 개수가 제일 적다고 하는 영어자모의 경우 비록 그것이 26자로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대글자와 소글자로 구별하여 쓰기때문에 사실상 52개인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이 영어글자의 거의 절반밖에 안된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오늘날 조선글자는 영어글자보

다 기술화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다.

컴퓨터건반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칠수 있는 글자는 세계적으로 오직 조선글자밖에 없다.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은 그 과학성과 독창성, 합리성 등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있다.

우선 언어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대학이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세계의 모든 글자들에 대하여 점수를 매기었는데 여기에서 《훈민정음》은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유네스코가 세계 2 900여개의 언어들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글자를 고르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훈민정음》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조선인민이 창조한 《훈민정음》은 세계에 소리의 높이 자랑할만한 한 훌륭한 글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우철연



## 140여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 전시

지적제품이라고 할 때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로동에 의하여 이룩된 북평의 지적재산으로서 여기에는 발명권과 특허권을 받은 기술, 과학기술성, 창의고안, 기술비결 같은것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지적제품류통사업을 잘하여야 과학기술과 생산을 보다 가깝게 밀착시키고 기술창조자와 수요자들, 기관, 기업소

들사이의 련계를 긴밀히 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해나갈수 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총국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적제품들에 대한 보급과 교류, 류통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에 지적제품전시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문을 열었다.

새롭게 꾸러진 지적제품전시장에서는 발명 및 특허문헌검색, 특허기술자료번역봉사, 각종 체계 및 응용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봉사, 과학기술자료편집(발명등록신청문건작성 포함)과 복사 및 인쇄봉사, 기술자문, 법률상담 등 여러가지 형태의 기술자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지적제품류통을 위한 합의, 계약실무를 방조하고 등록하는 사업, 해당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 부분별 전시회, 기술발표회, 기술강습 등도 진행하고있다.

이곳 전시장에는 버모판비배판리에서 방음 및 방습효과를 높이는데 리용하는 기공성벽돌, 살림집방수에 쓰이는 염기성방수세멘트, 소결성이 큰 제철들을 령간융접할수 있는 무니켈방간주철용접봉, 간단한 방식으로 중기생산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중기발생기를 비롯하여 나노매체형공기멸균기, 직류초전압전자처리기, 나노생물성장촉진기 등 농업, 건설, 석탄, 금속, 채취,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필수품 등 여러 부문에서 선발전 140여건의 발명 및 새 기술, 새 제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현물을 기본으로 하고 도해판, 소개책, 특허물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전시되어있는 지적제품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요가 높은 보다 새로운 제품들로 부단히 보충갱신되게 된다.

지적제품전시장이 훌륭히 꾸러짐으로써 국내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류통성이 높은 발명, 특허, 과학기술성과들이 신속히 소개전되고 수요자들과 련계를 지어주어 지적제품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보다 높여줄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새 기술의 보급과 교류, 류통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봉사로 경제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 물고기의 흥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흥분이 안으로 오무라들어갔으며 그 물고기는 생선한것이다. 흥분이 발그레하고 밖으로 튀어나왔으면 잠은 시간이 비교적 오랜것이다.

◆ 흥분이 보라색이 나고

### 삼 천 리 금 수 감 산 이 란 말 의 유 래

에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여기서 삼천리는 우리 나라의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로부터 최남단인 제주도의 마라도까지의 거리

가 2 700여리가 된다는데서 유래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에나 수려한 산과 넓고 비옥한 벌이 있으며 맑은 강하천과 무성한 산림이 많다.

또한 뚜렷한 4계절에 따르

는 경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때문에 에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렀다.

본사기자

### 물고기의 신선도를 알아본

특 튀어나왔으면 속이 변질해가고있는것이다.

◆ 질이 좋은 언 물고기는 표면에 깨끗하고 광택이 나며 고기와 뼈들이 갈라지

지 않고 잘 붙어있다. 따뜻한 물에 녹이면 신선할 때의 외형특징들을 가지고있다. 냄세를 맡아보면 다른 역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녹인 후의

물고기가 만일 배가 거뭇고 탄성이 없을뿐만아니라 고기와 뼈가 갈라져 있다면 뱀뚱하기 전에 신선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한다. 게다가 맡기 어려운 썩은 냄새가 나면 변질된 물고기이다.

본사기자

## 사 회 개 성 고 추 장 (4)

글 전 철 호, 그림 김 윤 일

장씨는 두 늙은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 부지런히 주걱질을 하였다.

그날 밤 장씨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들수가 없었다. 《여보, 할아버님 하신 말씀 들었지? 솔치가 구수하다고...》

근달이 장씨의 손을 잡으며 다정스레 말했다.

《저를 위안하자고 한 말씀이시와요.》

《모르는 소리. 아, 우리 할아버님이 직방치라는걸 몰라?》

장씨는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글썽 저녁상에 가까스로 일어나 마주앉은 시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아이적에 솔치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럴 때라서 맛있게 잡수신 것이었다.

창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대했던지... 장씨는 밥을 태우면서까지 속궁냥한걸 당장 만들어보지 않고서는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여보, 날 좀 도와주시와요.》

장씨는 용단을 내려 일어나 앉았다.

《원대?》

《설날에 색다른 반찬을 올리자고 하나이다.》

《그것때문이라면 그만두겠소. 식솔값고 가난한 집안인 일을 다 맡아 언제 한 번 허릴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당신이 그만쯤 어른공대를 했으면 만족하지 무얼 더 하라겠소?》

《여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대 우리가 온전한 손발이 없어서 량반을 보란듯이 어른공대를 하지 못했나이까. 우린 어떻게 하나 할아버님의 입맛을 돌려드려야 하나이다.》

근달은 그만 안해의 절절한 말에 감격하여 장씨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생각했소. 자, 무엇이든 말만 하오.》

밤은 깊었건만 장씨와 근달은 부엌문을 꼭 닫고 소리가 날새라 찰떡을 쳐서 길금가루를 뿌린 다음 한동안 절구질을 하다가 소금과 고추가루를 넣고 또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을 하면 할수록 새빨간 빛이 우러나와 떡반죽은 보다 더 먹음직스러워졌다.

《여보, 순침이 도는군. 보나마나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반찬이 될거야.》

《제발 이것이 할아버님을 일으켜드릴수 있다면 한이 없겠나이디.》

《이제 하늘이 당신 마음을 알아준다니까.》

량주는 정답게 속삭이며 새빨간 떡반죽을 하얀 백항아리에 넣고 바람이 들새라 두들겨 꼭 맞추었다.

동전만 한 흰돌이 소리없이 내려앉은 설날이 왔다. 온 마을이 어른들께 세배

를 드린다고 흥성이는 이 아침 김씨네 집에서 열한식구가 모두 안방에 모여들어 《할아버님, 백년을 장수하시고 백년을 또 앉아계십시오.》라는 인사가 있었고 이어 음식상이 차려졌다.

상우엔 비록 량반부자네 집에서처럼 육불이는 없었으나 음식들을 하나같이 정갈하고 빛깔이 곱았다.

병색이 짙은 시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다가 상가운데에 놓인 하얀 접시우에 새빨간 반찬을 가리켰다.

《아가, 이걸 좀 보는것 같다.》

《에그 령감, 다섯아들을 거느린 중손엄마보고 아직도 아가가 귀요? 쫓쫓, 주책이 없다는건... 그건 중손엄마가 새로 만든 반찬이라유.》

《거 로친네 말이 많다. 어디 네 좀 맛볼까.》

시할아버지는 웃으며 늦저가락끝에 새빨간 반찬을 찍어 혀에 가져갔다.

《이것 봐라.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한데다가 향기도 제법인데. 그렇지, 배추에 발라먹어볼까.》

시할아버지는 부루쌈을 먹듯 배추쌈을 먹고나서 《거,

참달 기막차는구나. 아니, 왜 다들 쳐다보기만 하는거냐? 어서 먹으라는네.》하고 즐겁게 소리쳤다.

네도나도 온 집안이 새빨간 반찬에 저가락을 가져갔다.

《기막차지? 이 반찬 밥도 적 한가지다.》

시할아버지가 꺾꺾 웃으며 계속 말하였다.

《그럼 내 우리 아가의 어린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여주겠다.》

《할아버님 말씀이 지당한 줄 아오이다.》

근달이 제격 응수했다.

《장손아비 대답이자 아가 대답인을 알겠다. 그런데 이 반찬을 돌리기에 앞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하물며 잡풀에까지 이름이 붙어있거늘 기막찬 반찬에야 더 말해 무



《여러날 먹어봐야 이렇구 저렇구 말할수 있겠지만 이 반찬은 보면 삼천리라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 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만 먹겠느냐.》

《아버님께서 이름을 붙려주시오이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맛장구를 쳤다.

《그럼 내 우리 아가의 어린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 반찬도 장은 장이렸다.

메주를 장독에 담그었다가 찜물을 따라 내면 그게 바로 간장이고 간장뽕고 남은 걸 된장이라 하고 간장을 뽕지 않고 깨르면 무장이고 된장죽에 깨를 치면 깨된장이요, 육불이를 넣으면 육장이라. 이 반찬은 콩이 아니고 찰떡과 고추가루로 만들었은즉 찰떡고추장이라 함이 마땅할것이니라.》

방안이 떠나갈듯 갈채가 일었다.

《그럼 찰떡고추장을 집집들에 돌려라.》

《깨끗이 차려입은 김씨네 녀인들은 찰떡고추장이 가득한 백항아리를 안고 나갔다.》

그날 장씨는 허를 두르며 칭찬하는 동네아낙네들에게 차근차근 찰떡고추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었다.

설날루게 김씨네 집에서는 삼시 세끼 밥상우에 새빨간 찰떡고추장이 빠지지 않았다.

새빨간 고추장으로 입맛을 돋운 시할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력으로 나갔다.

◆ 조선8경 백두산, 평양, 금강산, 묘향산, 부전고원, 지리산, 해운대, 불국사

◆ 조선8승 경성의 온포, 황해남도의 몽골포, 한려수도, 부안의 변산, 부여, 가야산의 해인사계곡, 속리산, 한나산

본사기자

참말이지 찰떡고추장은 물러지는 법을 몰랐다. 찬물에 밥을 말아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좋고 부루쌈이면 부루쌈, 산채면 산채, 꿏고추에 발라먹어도 밤이 모자라고 생선의 살을 저며 무쳐 먹으면 육불이 반찬이 울고가고 하다 못해 보리밥에 썩썩 비벼먹어도 스리슬쩍 넘어간다.

찰떡고추장은 세상에 낮은 내밀자마자 순식간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당겼다.

개성의 가난한 집 녀인이 어른들께 효도하자고 고심 끝에 찰떡고추장을 만들어낸 그대를 진주하여 여러 고을에서도 특색있는 고추장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여러 고추장들을 구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장씨가 만든 찰떡고추장을 《개성고추장》이라고 불렀다.

한번 맛들이면 지역관리의 머나먼 길을 떠날적에도 꼭 꾸러가야만 하는 조선민족의 진한 향취가 넘쳐나는 개성고추장은 오늘날도 그 맛이 여전히 전하여서 세상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끝)